불교의 근본 대승에 있어
〈大乘〉



지안 스님의 승만경 강화
㊷ 대승(大乘)

〈원문〉 부처님께서 승만 부인에게 말씀하셨다.

"그대는 부처님들께서 말씀하신바 정법을 거두어들이는 것을 이제 다시 말해 보라." 승만은 부처님께 아뢰었다. "예, 세존이시여. 그리하겠습니다." 그리고는 곧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정법을 거두어들이는 것은 곧 마하연(摩訶衍 : 대승)입니다. 그 까닭을 말하면, 마하연은 온갖 성문(聲聞)과 연각(緣覺)과 세간 선법과 출세간 선법을 내기 때문입니다. 세존이시여, 마치 아뇩지(阿耨池) 큰 못에서 여덟 개의 큰 강이 흘러나오듯이, 마하연에서도 온갖 성문과 연각과 세간 선법과 출세간 선법이 나옵니다.

세존이시여, 또 마치 온갖 씨앗이 모두 땅을 의지하여 싹이 나서 자라듯이, 온갖 성문과 연각과 세간 선법과 출세간 선법이 대승을 의지하여 자랍니다. 그러므로 세존이시여, 대승에 머물러 대승을 거두어들이는 것은 곧 이승(二乘)에 머물러 이승과 세간 선법과 출세간 선법을 거두어들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세존께서 여섯 가지 육처(六處)를 말씀하심과 같사오니, 육처란 것은, 바른 법이 머무는 것, 바른 법이 없어지는 것, 바라제목차(波羅提木叉), 비니(比尼), 출가, 구족계(具足戒)를 받는 것들입니다. 대승을 위하여 육처를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바른 법이 머문다는 것은 대승을 위하여 말씀하신 것이므로 대승이 머무는 것이 곧 정법이 머무는 것이며, 정법이 없어진다는 것은 대승을 위하여 말씀하신 것이므로 대승이 없어지는 것이 곧 정법이 없어지는 것이며, 바라제목차와 비니의 두 가지 뜻은 한 가지면서 이름만 다른 것이니, 비니라는 것은 곧 대승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 까닭은 부처님을 의지하여 출가하였고, 그리하여 구족계를 받는 것이므로 대승의 위의(威儀)인 계가 곧 비니이며 출가며 구족계를 받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강설〉 부처님의 권고에 의해 승만 부인이 다시 정법의 수승함을 강조하는 내용이다. 마하연은 마하야나(mahayana)를 음사한 말로 대승(大乘)이란 말의 어원이다. 〈대승기신론〉에서는 이 마하야나가 바로 중생의 마음이라고 밝힌 말이 나온다. 다시 말하면 중생의 본래 마음이 대승이라는 것이다. 이 대승이 세간법 출세간법의 모든 법을 거두어들인다고 기신론에서도 말하고 있다. 땅에서 온갖 종류의 씨앗이 싹이 터서 자라듯이 이승법이나 세간법, 출세간법이 대승을 의지해 자란다 하였다. 물론 부처님의 법 자체에는 대승이니 소승이니 성문이니 연각이니 하는 것이 없다. 다만 중생의 근기에 따라서 구별돼 나눠지는 것이다. 다시 말해 법에는 고하(高下)가 없으나 사람에 따라 고하가 있다는 말이다.

아뇩지는 인도 고대의 전설상의 큰 못으로 설산 속에 있다는 못이다. 여기서 물이 사방으로 흘러나와 강이 여러 개로 나누어진다고 한다. 정법인 대승이 일체 2승과 세간 출세간법을 내는 것이 아뇩지의 물이 흘러나와 여러 개의 강이 되고, 땅이 일체 씨앗의 싹을 트게 하여 자라게 하는 것과 같다고 하였다. 불교를 부파에 따라 구분하는 이름이 다르게 있고 종파에 따라 구분하는 이름들이 있고, 또 시대에 따라 구분하여 초기, 중기, 후기 불교 등으로 나누기도 하지만 불교의 근본은 대승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대목이다. 육처 가운데 비구 비구니가 출가하여 구족계를 받는 것까지 언급되고 있는데, 원래 구족(具足)이란 말은 범어 우파삼파다(upasampada)를 번역한 말로 열반에 가까이 간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말이다. 부처님 당시에는 부처님이 출가를 하러 온 제자들에게 "잘 왔노라. 비구여!(善來比丘)"하면 출가가 이루어져 비구의 신분을 얻었다고 한다. 그러나 후대에 와서 중국이나 한국, 일본 등 북방권에서는 비구 · 비구니계를 구족계라 하여 이 계를 받아야만 비구, 비구니 계품(戒品)이 이루어져 수행자의 신분이 갖춰지므로 구족계라고 하기에 이르렀다. 이 계에서 정과 혜로 이어져 결국 계 · 정 · 혜(戒定慧) 삼학의 정신이 대승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말이다.

〈반야불교연구원장〉

선정 · 삼매수행 위해선 스승 있어야



대풍 스님의 진심법문
㊺ 선정수행 조건과 깨달음 위한 조절법

둘째는 선정 · 삼매 수행을 잘하기 위해서는 의복과 음식[衣食]을 잘 갖추어야 합니다. 선정 · 삼매 수행을 잘하기 위해서는 의복과 음식을 지혜롭게 갖추어야 합니다. 수행자가 수행을 위해 옷이 너무 많아서도 안 되며, 그렇다고 옷이 너무 없어서 추위에 몸을 떨게 해서도 안 됩니다. 수행자는 보통 3벌의 옷을 갖추어 입습니다.

올바른 수행을 위해 음식에 대한 인연도 지혜롭게 잘 갖추어야 합니다. 탁하고 상한 나쁜 음식을 먹어서는 안 되며, 너무 화기(火氣) 북돋우는 음식을 먹어서도 안 되며, 더욱이 음식을 너무 배부르게 먹어서도 안 됩니다. 옛말에 "뱃가죽이 늘어나면, 눈가죽이 늘어난다."는 속담이 있듯이 음식을 너무 많이 먹으면 그만큼 잠도 많아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참선과 선정수행을 잘하기 위해서 밥을 배부르게 먹어서는 안 되며 그렇다고 굶주려서도 안 됩니다. 항상 음식을 먹을 때 음식의 양이 위장의 70%가 넘지 않도록 줄여서 먹어야 합니다.

특히 단식이나 금식 같은 것은 참선이나 선정수행에 있어서 매우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배가 고픈 상태에서는 참선이 잘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선정 삼매에 도달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숙달된 수행자라면 배고픈 것을 잊고 수행에 임할 수가 있겠지만, 초심자나 보통 수행자는 배가 고프면 밥 생각이 너무 일어나 수행을 방해하기 때문에 단식이나 금식은 참선과 선정수행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셋째는 선정 · 삼매 수행을 잘하기 위해서는 참선하는 공간, 즉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예로부터 두타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개나 닭이나 염소 등의 가축들을 방목하는 소리가 안 들리고, 모든 흐트러짐과 시끄러움이 없는 한적한 청정처가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불자들이 비록 자기 집에서 참선을 할지라도 참선하는 곳은 참선하는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좋은 환경을 만들어 놓고 시작해야 합니다.

넷째는 선정 · 삼매 수행을 잘하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모든 인연(諸緣)을 버려야 합니다. 선정 수행을 잘하기 위해서는 주위 환경의 모든 잡다한 용무를 그만두고 세속적인 일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대인관계를 하는 등의 주변 용무를 그만두고 속인이나 친구, 친지 등을 찾아다니는 등 사람들과의 왕래를 끊어야 합니다. 한마디로 선정을 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번잡한 반연(攀緣)을 모두 멀리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선정 · 삼매 수행을 잘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스승을 가까이 모셔야 합니다. 선정수행을 잘하기 위해서는 항상 선지식(善知識, 스승)을 항상 가까이해야 합니다. 선지식에는 3종류의 선지식이 있습니다. 첫째는 수행을 잘 할 수 있도록 자신을 곁에서 외호해 주는 선지식입니다. 둘째는 나와 같이 함께 수행하는 도반 선지식입니다. 셋째는 나를 지도해 주는 교수 선지식입니다. 만약 스승이나 선지식 없이 혼자서 참선하거나, 책을 통해 독학한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독살이를 하며 수행을 하면 상당한 위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스승의 올바른 가르침이 없을 뿐만 아니라 수행 중간 중간을 명안종사 선지식으로부터 점검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올바른 참선을 이루기는커녕, 외도 선으로 빠지거나 마구니에 빠져서 평생의 공부를 망쳐버리고 건강을 잃고 폐인이 되기가 십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불자들이 참선을 할 때 유튜브나 책을 통해 혼자 독학으로 수행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불자들은 스승 없이 혼자 참선수행하는 것을 가장 조심해야 합니다. 반드시 참선을 경험한 선사나 명안종사나 선지식들을 찾아서 먼저 묻고 배우고 익혀서 그 가르침에 따라 수행을 해야 합니다.

〈밀양 사천왕사 주지〉



지흐스님의 禪으로 읽는 '맛지마니까야'
㊷ 마간디야의 경 1

분별심 버리는 것이 귀의
〈歸依〉

"존자 고따마여, 그 불은 지금만 닿으면 괴로운 것으로 커다란 열기, 커다란 타는 듯한 고뇌를 가져온 것이 아니라, 이전에도 닿으면 괴로운 것으로 커다란 열기, 커다란 타는 듯한 고뇌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존자 고따마여, 그 나병환자는 사지가 헐고, 사지가 썩어들어가고, 벌레에 먹혀들어가고, 손톱으로 상처의 구멍이 할퀴어져서, 모든 감각능력이 파괴되었습니다. 그래서 불이 실제로 닿으면 괴로울 텐데 즐겁다고 느끼는 거꾸로 된 지각을 갖고 있습니다."

'가르침에 귀의(歸依)합니다.' 이 문장을 많이 듣고, 말하지만, 그 뜻을 온전히 파악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귀의하는 데 무슨 뜻을 알아야 할 것이 있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귀의'는 수행을 지어가는 데 있어 중요한 부분이다. 이를 깊이 사유하지 않으면 불필요한 군더더기를 만들어 나중에 그것을 제거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가지게 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바른 귀의를 할 수가 있는가? 지금 자신이 '나'라고 하는 오온은 무명에 빠져있어 진리가 무엇인지를 모른다고 바로 알아야 한다. 이때 모른다는 것은 '모든 것'이어야 하며 조금도 무엇을 남겨두어서는 안 된다. 이것이 분별을 끊는 가장 좋은 방법이고, 가장 확실한 방법이지만 실천하는 것은 쉽지 않다. 실천이 어려운 것은 믿지 못하는 의심 때문이다. 이 의심은 자기 나름대로의 상황 판단이나 경험에서 일어난 옳음을 가지고 있다는 보이지 않는 확신을 바탕으로 한다. 그 가지고 있는 마음이 바른 진리를 들음에 장애라는 것은 시간이 흘러야 이해된다. 오온이 지금 전도몽상이 되어 어떤 현상과 소리에 나타난 사실을 바르게 보지 못한다는 것을 들어서 받아들여야 한다. 가르침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오온에게서 일어나는 올바르지 않은 분별심을 통해서 내가 무엇인지를 밝혀낸다면, 지금까지 '나[我]'라고 알고 있는 느낌이 얼마나 거꾸로 된 지각인지를 알 수 있다.

법회 때마다 마지막에 독송하는 〈반야심경〉은 '나[我]'라는 생각으로 얼마나 많은 오류를 범하고 있는지를 가장 잘 설명해주는 경이다. 260자의 말씀 중에 모든 구절이 중요하지만 '원리전도몽상 구경열반(遠離顚倒夢想 究竟涅槃)'이라는 구절은 언어의 번역보다는 뜻을 잘 번역하여야만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뜻을 곡해 없이 받아들이게 된다. 일반적인 번역은 '뒤바뀐 헛된 생각을 멀리 떠나 완전한 열반에 들어가다.'이다. 글자를 그대로 풀어보면 무엇인가를 떠나면 열반에 들어간다고 생각하겠지만, 번역이 주는 오류를 바르게 아는 것은 앎이 없으면 쉽지 않다. 수행의 지침이 되는 가르침은 번역해 그대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다. 사전적인 번역은 글을 배우면 가능하지만, 글의 함의(含意)를 해석하는 일과는 다른 문제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해한다는 것은 지견이 생긴 것이지 지혜가 생긴 것이 아니다. 그래서 옛 조사들도 "지견이 마구니"라는 말씀을 하신 것이다. 한 단어 한 단어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이 가르침의 뜻을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번역 그대로는 누구나 이해할 수 있지만, 그 번역이라는 것이 말하고자 하는 뜻과 다르다면, 번역은 무의미한 해석이 될 수밖에 없다. 원리(遠離)는 '멀리 떠난다'는 사전적 의미는 있지만, 다른 관점에서 보면 이미 멀리 떠나 있는 것을 '나[我]다, 나[我]의 것이다, 나[我]의 자아다'라고 여겨 다시 떠날 필요는 없다. 그래서 원리(遠離)를 '무엇이 내가 될 수 없다'로 번역하여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뒷부분을 번역하는 일이 수월해진다. "전도몽상이 되어 있는 오온이 내가 될 수 없을 때, 완전한 열반에 든 것이다."라고 번역해야 한다. 이렇게 번역할 때, 본래로 닦을 필요 없는 '돈오돈수(頓悟頓修)'가 증명된다. 만약 어떤 행위의 주체가 존재하게 되면 '돈오돈수'라는 원뜻을 저버리게 되는 것이다.

본래성품 자체가 돈오돈수이지 무엇을 닦아 돈오돈수가 되는 것은 아니네.
행위를 주체로 삼고 있는 오온을 '나'라고 한다면,
말로는 돈오돈수라 하고 행위는 돈오점수를 닦는 꼴이니
어찌 계합할 날을 기다릴 수 있겠는가!

〈(사)여시아문 선원장〉

겨울철
난방(煖房)
걱정 끝!
바닥철거 없이 시공가능 난방비 50% 절감
21세기 신 난방 문화의 대변혁 : 법당, 요사채, 선방, 공양간 등
◈ 시공실적 ◈
해인사 백련암, 미황사(해남), 대흥사(단양), 용담사(안동), 연꽃마을(용인요양원), 경남 고성 대명사, 전국 캠핑장 캠핑트레일러(경인 아라뱃길, 가평 자라섬), 대부도 캠핑장, 성동힐링센터(동강) 등
"정직한 시공으로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정원난방산업 문의 010-3267-1263

민속죽염 30년 전통
조상의얼과혼이담긴 우리민족의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좋은 소금" 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①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②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③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④ 정혈작용 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환인풍 요가마을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 9번 구운 민속죽염 ◈
가루자죽염 125g 45,000원
가루자죽염 230g 82,000원
알갱이자죽염 125g 50,000원
알갱이자죽염 230g 90,000원
휴대용 알갱이자죽염 20g 9,000원
◈ 2번 구운 민속죽염 ◈
◆ 음식조리용 · 양치용 · 피부미용
보급형 민속죽염 500g 20,000원
250g 10,000원
※ 단체 선물용으로 적합합니다. ※ 구입가 5만원 미만은 배송비 3천원 적용됩니다.
주문 및 상담 010-2823-0483
입금 : 농협 150012-56-086122 예금주 : 김용희(민속죽염)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길381-4 www.msjy.co.kr